

스마트로, “화물트럭이 5분후에 도착합니다”

도착예정정보서비스로 스마트항만시스템 업그레이드

입력일자 : 2011-05-11 17:37

[이전으로](#)

[크게보기](#)

[작게](#)

[프린트](#)

[목록보기](#)

지팬스 스마트로(대표 양현석)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컨테이너터미널 반출입예정정보조회, e-Slip (전자인수도증) 서비스에 이어 5월부터 도착예정정보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착예정정보서비스란, 컨테이너 운송 운전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위성위치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해 차량의 터미널 도착 예정 시간을 터미널 운영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운영사는 해당 차량이 운송할 컨테이너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돼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smart)와 로지스틱스(Logistics)의 합성어인 스마트로(SmartLo)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포트 시스템 서비스로, 올해 2월 대한통운컨테이너터미널(KBCT)을 시작으로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동부감만터미널 허치슨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인터지스 등 이용기업이 확대되고 있다.

반출입예정정보조회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컨테이너의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e-Slip 서비스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반출입 시 종이로 출력되는 슬립발행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포트 서비스다. 이를 이용해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차량 ID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터미널 내 작업 위치를 나타내는 부두 내 네비게이션 기능으로 부두에서 신속하게 하역 위치를 찾아 갈 수 있게 돼 운전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터미널 운영사는 게이트 반출입 처리 속도 개선 게이트 혼잡도 감소 등의 효과 뿐 아니라 기존 종이 슬립 발급 비용이 절감되는 등 높은 효율성이 입증됐다.

양현석 대표이사는 “도착예정정보서비스 이외에도 터미널 정보 조회 서비스, 차량 관제 서비스, 운송 관리 서비스(스마트폰 배차 서비스)가 추가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모바일과 웹을 통한 항만 운송사 시스템과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보다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물류 통합 서비스가 갖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코리아쉬핑가제트에 있으며,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를 금함 -

IT&과학

SKT, 화물기사용 스마트폰 앱 출시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SK텔레콤이 [화물](#)트럭 기사들을 위한 [물류](#) 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지팬스 스마트로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로(SmartLo)'는 [화물트럭](#) 기사들이 물류터미널에서 시간과 기름값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준다. 스마트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물차](#) 기사는 스마트폰으로 차량 ID카드를 관리하고 [화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늦은 [정보처리](#) 등으로 인해 화물차 기사들이 터미널을 수차례 들락날락해야 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물류 정보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터미널 관리 회사 역시 [운송](#) 회전율을 높여 제한된 공간에서 좀더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로는 대한통운 부산 [컨테이너](#)터미널과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동부부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범서비스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60여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SK텔레콤은 스마트로를 T맵과 연동해 [화물차량](#) 도착 예정시간을 터미널 [시스템](#)에 제공하는 등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AD]★블랙헤드★
초간단제거



[AD]남편을 사로잡은
속좁은 여자의 비밀



[스타]유지태, 멀리서
도 눈에

스마트로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프로모션](#) 기간인 6월까지의 이용료가 [무료](#)다.

서울경제 인기기사

- 일류 건축가도 '깜짝'... 한국건설 일냈다
- '헉!' 10살도 안 된 소녀 몸에 이런일이...
- '연비 21.0km/ℓ' 새로워진 K5 성공할까
- 설 곳 좁아진 여배우들의 피치 못할 선택

- 한국군 무기 성능에 페루 대통령도 극찬
- 또 세계 최초... 韓 기술력 '역시 최강!'
- 천하의 삼성·LG도 찢찢매는 괴물들
- 미녀모델, 파격적 란제리에 '충격'

[주도주 5개로 시장을 이긴다! 알파클럽 투자설명회에서 확인하기 >>](#)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1/03/31 10:44:35 수정시간 : 2011/05/13 06:51:04

🏠 뉴스홈으로 ⋮ ⬆ 맨위로

SKT, 스마트폰으로 물류작업 '스마트로' 출시

기사본문

SNS댓글 0

입력: 2011-03-31 11:19 / 수정: 2011-03-31 11:55



SK텔레콤은 31일 스마트폰으로 물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스마트로(SmartLo)' 서비스를 출시했다.

SK텔레콤과 지팩스 스마트로가 공동 특허 출원한 스마트로는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인천항·부산항 등 전국 60여개 화물터미널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스마트로는 화물차 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ID카드와 전자 인수도증을 발급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화물차 기사가 한 터미널에서 여러 화물을 실을 때 게이트를 수 차례 경유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기름을 아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터미널 관리 회사 입장에서는 화물차 기사에게 인수도증을 발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종이 및 설비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터미널 내 운송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네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 map)과 연동해 터미널에 화물차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거나 화물차 기사가 운송 예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 물류 서비스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SKT, 스마트폰 기반 물류서비스 '스마트로' 전국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11.03.31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구매하기 PDF보기 번역의뢰

한마디쓰기(0) -작게 | 기본 | +크게



[AD] Power 회로 이론 및 설계사례_PCB Level On-board DC-DC Converter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스마트폰 기반 물류 서비스 '스마트로(SmartLo)'를 인천항·부산항 등 전국 60여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로는 트레일러 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ID카드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전자 인수도증을 발급받는 서비스다. 매 작업마다 인수도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동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시간과 기름 낭비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여준다.



'스마트로' 구현 화면

SKT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비롯해 부산신항국제터미널·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서비스 지역 확대에 나섰다. SKT는 오는 4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인식 기업사업부문장은 "실시간 차량 도착 정보 시스템, 스마트 배차 관리, 컨테이너 추적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며 프로모션 기간인 6월까지 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IT&과학

SKT, 화물기사용 스마트폰 앱 출시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SK텔레콤이 [화물](#)트럭 기사들을 위한 [물류](#) 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지팩스 스마트로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로(SmartLo)'는 [화물트럭](#) 기사들이 물류터미널에서 시간과 기름값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준다. 스마트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물차](#) 기사는 스마트폰으로 차량 ID카드를 관리하고 [화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늦은 [정보처리](#) 등으로 인해 화물차 기사들이 터미널을 수차례 들락날락해야 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물류 정보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터미널 관리 회사 역시 [운송](#) 회전율을 높여 제한된 공간에서 좀더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로는 대한통운 부산 [컨테이너](#)터미널과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동부부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범서비스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60여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SK텔레콤은 스마트로를 T맵과 연동해 [화물차량](#) 도착 예정시간을 터미널 [시스템](#)에 제공하는 등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로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프로모션](#) 기간인 6월까지의 이용료가 [무료](#)다.

SKT, 물류 도우미 '스마트로' 출시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SK텔레콤은 스마트폰으로 물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스마트로(SmartLo)'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주)지팩스 스마트로가 공동 특허 출원한 스마트로는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인천항·부산항 등 전국 60여개 화물터미널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스마트로는 화물차 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ID카드와 전자 인수도증을 발급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화물차 기사가 한 터미널에서 여러 화물을 실을 때 게이트를 수차례 경유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기름을 아낄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터미널 관리 회사 입장에서는 화물차 기사에게 인수도증을 발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종이 및 설비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터미널 내 운송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네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 map)과 연동해 터미널에 화물차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거나 화물차 기사가 운송 예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 물류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www.SmartLo.co.kr)나 고객센터(☎1599-89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1 11:08 송고

< 이전 ^ 위로

스마트폰 활용 컨' 반출입 시스템 구축

KBCT, "트럭 운전자 편의성 증대·터미널 경쟁력 확보"

2011년 02월 14일 (월) 19:45:54

임형균 기자 press@elogis.biz

부산 신선대 컨테이너 부두가 트럭 운전자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시스템을 구축, 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KBCT, Korea Express Busan Container Terminal)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터미널 운용 시스템에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로(SmartLo)'는 스마트폰의 'Smart'와 물류를 뜻하는 'Logistics'의 합성어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원들이 항만 게이트 출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트럭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예약된 상하차 컨테이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인수도증을 발급받아 해당 상하차 장소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터미널 내에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내 네비게이션을 제공함에 따라 GPS를 활용, 스마트폰의 고화질 화면으로 터미널 내 이동 경로를 지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 평균 10만여 대 이상이 드나드는 KBCT는 그동안 트럭 운전자들이 컨테이너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아 터미널 밖에서 대기하거나 언제 도달할 지 모르는 정보를 위해 수시로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KBCT는 컨테이너 부두 주고객이라 할 수 있는 트럭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엔 '스마트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KBCT 김용진 IT 운영팀장은 "KBCT가 '스마트로' 도입을 계기로 컨테이너 트럭 운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됐다"며, "이로써 다른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경쟁에서도 한발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스마트로' 출시를 계기로, 2011년 토끼해를 맞아 KBCT는 '고객을 위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SKT, '스마트로' 통해 물류 체증 뚫는다

실시간 작업 정보 조회로 트레일러 기사 업무 효율 높여

2011-03-31 09:38:42



SK텔레콤은 자사 솔루션인 '스마트로(SmartLo)'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비롯,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서비스 지역 확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주)지팩스 스마트로가 공동 **특허** 출원한 '스마트로'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Smart'와 **물류**를 뜻하는 'Logistics'의 합성어다.

이 서비스는 트레일러 기사가 동일 터미널 내 다른 **화물**을 실는 업무를 위해 수차례 게이트를 경유해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이다.

'스마트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트레일러 기사는 스마트폰으로 차량 ID카드를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전자 인수도증을 발급 받아 작업의 유무 및 화물 정보가 정확히 입력돼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매 작업마다 인수도증 발급을 위해 게이트에 방문하거나, 방문 후에도 부족한 정보입력으로 인해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터미널 관리 회사는 트레일러 기사에게 인수도증을 발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종이와 설비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터미널 안에서의 운송 회전율을 높여 제한된 공간에서 좀 더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T-map과 연동해 차량 도착 예정시간을 터미널 **시스템**에 제공해 컨테이너를 실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트레일러 기사가 직접 운송 예정 정보를 조회해 장거리 운송 후 돌아올 때에도 추가 운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종합 물류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게 회사 측 목표다.

박인식 SK텔레콤 기업사업부문장은 "실시간 차량 도착 정보 시스템, 스마트 배차 관리, 컨테이너 추적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스마트로'는 시범서비스를 구축한 3개 터미널 외에 추가로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60여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4월 4일에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광표 기자 pyo@ebn.co.kr

**view on**

SKT, '스마트로' 통해 물류 체증 뚫는다
EBN산업뉴스 **구독+** | 조회 1 | 메시지 0



SK텔레콤, '스마트로' 물류 체증 뚫는다

'스마트로', 시간·기름값을 한번에 잡아

2011년 03월 31일 (목) 10:19:18

하준철 기자 hapoem@lognews.co.kr



트레일러 기사 박모씨(가명)는 오늘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싣는데만 1시간을 보냈다. 평소에는 10분 이면 1번 정도만 있었을 화차(화물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을 돌려 터미널 외부로 빠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가 오늘은 연속으로 발생했고, 새로운 컨테이너의 인수도증을 받기 위해서도 게이트로 계속 왕복 운전をした기 때문이다. 담당자(화주)가 화물 정보 등록을 깜빡 잊고 못한 경우에는 화차에 걸리는 시간이며 기름값 낭비에 답답하기만 하다. 얼마전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는 윤모씨(가명)는 오늘따라 싱글벙글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스마트로(SmartLo)' 서비스를 사용한 이후부터 시간낭비와 기름값을 한번에 잡아 일할 맛이 나기 때문이라 한다.

SK텔레콤(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의 '스마트로(SmartLo)'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비롯하여,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서비스지역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선다.

SK텔레콤과 ㈜지팩스 스마트로가 공동 특허 출원한 '스마트로'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Smart'와 물류를 뜻하는 'Logistics'의 합성어로 트레일러 기사가 동일 터미널 내 다른 화물을 싣는 업무를 위해서 수차레 게이트를 경유해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이다.

'스마트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트레일러 기사는 스마트폰으로 차량 ID카드를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전자 인수도증을 발급 받아 작업의 유무 및 화물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매 작업마다 인수도증 발급을 위해 게이트에 방문하거나, 방문 후에도 부족한 정보입력으로 인해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시간낭비와, 불필요한 기름 낭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터미널 관리 회사는 트레일러 기사에게 인수도증을 발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종이와 설비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터미널 안에서의 운송 회전율을 높여 제한된 공간에서 좀더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T-map과 연동하여 차량 도착 예정시간을 터미널 시스템에 제공해 컨테이너를 싣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트레일러 기사가 직접 운송 예정 정보를 조회하여 장거리 운송 후 돌아올 때에도 추가 운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종합 물류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SK텔레콤 박인식 기업사업부문장은 "트레일러 기사분들은 컨테이너 운송과정 중에 터미널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및 기름 소모를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며 "실시간 차량 도착 정보 시스템, 스마트 배차 관리, 컨테이너 추적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스마트로'는 시범서비스를 구축한 3개 터미널 외에 추가로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60여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4월 4일에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현재 '스마트로' 서비스는 SK텔레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러 기사라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SmartLo'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별도의 인증절차를 통해 프로모션 기간인 6월까지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관심 있는 터미널 운영사 또는 운송사 관계자, 트레일러 기사들은 홈페이지(http://www.SmartLo.co.kr)나 고객센터(1599-8965)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통신문 :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SmartLo[스마트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2011. 02. 16)

대한민국 교통포털

로그인 | 멤버십 |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 즐겨찾기

교통신문

GyotongN.com

검색

육상운송

자동차

물류

전국

관광항공

교통안전

교통종합

기업

금융

전체기사

오피니언 | 기사제보

섹션광장

사설

·사설 = 춘전중 "DMB 시술"...

·사설 = 그룹분야 IT 기술과...

·사설 = 한국그룹대학 졸업에...

기획특집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

·"순회학 수련원" 일한 47억...

·"2011년 그룹물류 해안산업"

스페셜리포트

·2011 버스캠페인-출 1~5월

·학식캠페인-출사

·버스캠페인- 2011년도 그룹...

테마기획

·[신년특집] 심리학같은 교통...

·[신년특집] 시민 참여확대...

·[신년기획] 피해자 보호...

홍창의 교수의

교통신문

김상태 박사의

관광신문

설재훈 박사의

월요아침

백종실 교수의

글로벌로지스

김소영의

오토비전

제 4422호 2011년 6월 9일 ... more

교통신문

보철필요금 공표제 폐지

신체 할 수 있는 디지털 운항기...

현대택배

21세기를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물류

기사내용 보기

2011-02-16 09:49:51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 - 'SmartLo[스마트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구분	컨테이너번호	크기	상태
반입	ABCD1234560	20	✓
반입	ABCD1234561	20	✓
반입	ABCD1234562	20	✓
반입	ABCD1234563	20	✓
반입	ABCD1234564	20	✓

반/출입 구분	반입
컨테이너 크기/타입	45 / 10
적/공	적
정상유무	정상
오류정보	정상처리
게이트 통과여부	통과전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KBCT) - 업계 최초로 적용
운전자 편의성 확보, 터미널 경쟁력 향상 효과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KBCT, Korea Express Busan Container Terminal)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자사 터미널 운용 시스템에 도입했다.

KBCT사는 'SmartLo(스마트로)'라고 이름 붙여진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SmartLo'는 스마트폰의 'Smart'와 물류를 뜻하는 'Logistics'의 합성어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들이 항만 Gate 출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KBCT가 'SmartLo'의 도입을 적극 결정하게 된 목적은 고객의 편의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한 달에 약 10만여대에 달하는 KBCT 출입 컨테이너 트럭 운전자들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KBCT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터미널 내 목적지가 기재된 인수도장을 발급받아 해당 상하차 장소로 이동하여 컨테이너를 실거나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은 예약된 컨테이너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터미널 밖에서 대기해야 하고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SmartLo'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내에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KBCT, 스마트폰 활용한 “SmartLo” 업계 최초 적용

“트럭 운전원 편의성 높이고 터미널 경쟁력 강화”

2011년 02월 15일 (화) 09:30:17

하준철 기자 ✉ hapoem@lognews.co.kr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이하 KBCT, Korea Express Busan Container Terminal)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자사의 터미널 운송 시스템에 도입하고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martLo’는 스마트폰의 ‘Smart’와 물류를 뜻하는 ‘Logistics’의 합성어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원들이 항만 Gate 출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KBCT를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운전원은 터미널로 들어가기 전 미리 예약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 확인 작업을 마친 후, 터미널 내 목적지가 기재된 인수도증을 발급 받아 해당 상하차 장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원들은 예약된 컨테이너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터미널 밖에서 대기해야 하며, 정보가 언제 확인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SmartLo’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내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고화질 화면으로 터미널 내 이동 경로를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항만 내 네비게이션 기능도 지원되어 운전원들의 작업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KBCT 김용진 IT 운영팀장은 “‘SmartLo’를 통해 한달에 10만여 대가 넘게 입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martLo’ 도입을 계기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타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海事情報



로그인 회원가입 2011년 5월 12일 종합 해운 항만 연안해운 조선 외선 물류 인사/동정

기사모음
전체기사
포토갤러리

안내데스크
기사제보
광고안내
구독신청

HOME>항만

크게 작게 보내기 인쇄

KBCT, “SmartLo[스마트로]” 시스템 업계 최초 적용

해사정보신문 webmaster@haesainfo.com

트럭 운전원들의 편의성 증대와 터미널의 경쟁력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KBCT, Korea Express Busan Container Terminal)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자사의 터미널 운용 시스템에 도입하기로 했다.

KBCT사는 'SmartLo'(스마트로)라고 이름 붙여진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SmartLo'는 스마트폰의 'Smart'와 물류를 뜻하는 'Logistics'의 합성어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원들이 항만 Gate 출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KBCT가 'SmartLo'

의 도입을 적극 결정하게 된 목적은 고객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이다. KBCT를 이용하는 주 고객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의 운전원들로, 한 달에 약 10만여 대가 넘는 트럭이 KBCT를 드나들고 있다.

트럭의 운전원은 KBCT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작업을 마친 후, 터미널 내 목적지가 기재된 인수도증을 발급 받아 해당 상하차 장소로 이동하여 컨테이너를 실거나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원들은 예약된 컨테이너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터미널 밖에서 대기해야만 한다. 또한 정보가 언제 확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작업을 반복하는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SmartLo'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내에서 시각각으로 바뀌는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고화질 화면으로 터미널 내 이동 경로를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항만 내 네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한다.

KBCT 관계자는(김용진 IT 운영팀장) KBCT가 'SmartLo'의 도입을 계기로 컨테이너 트럭 운전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다른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되었다며 'SmartLo'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011년 토끼해를 맞아, KBCT는 'SmartLo'를 이용하여 고객을 위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SG MEMBER

이순복님

로그인 하셨습니다.

정보수정 | 로그아웃

KSG SERVICE

- 전체기사보기
- PDF 서비스
- KSG 방송

등대지기

칼럼/기고

KSG포토뉴스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구독/구입 문의

기사제보

해운물류용어사전

지난호보기

해운무역업계
선적업무 지침서

현할 | 송금 | 여행지수표

2011-02-15 08:29 more +

현할	사실때	파실때
USD	1142.65	1103.35
JPY	1371.56	1324.40
EUR	1544.73	1484.45
CNY	182.14	161.72



KSG HOME > 전체뉴스

대한통운부산터미널 “화물차 출입 똑똑해져요”

부두 출입 지원 앱 ‘스마트로’ 도입

입력일자 : 2011-02-15 06:54

이전으로 | 크게보기 | 삭제 | 프린트 | 목록보기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인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KBCT)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폰 지원 기능을 함양해 최초로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KBCT는 스마트로(SmartLo)라고 이름 붙인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운물류 전문 IT기업인 지팩스가 개발한 스마트로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항만 출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스마트(Smart)와 물류를 뜻하는 로지스틱스(Logistics)를 합성한 이름이다.



스마트로 사용화면

KBCT는 이 앱의 도입으로 화물차 출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CT엔 한 달에 약 10만여대가 넘는 화물차가 드나든다. 화물차는 부두 출입을 위해 미리 예약된 컨테이너 정보를 확인한 뒤 터미널 내 목적지가 기재된 ‘인수도증’을 발급 받아 해당 상하차 장소로 이동해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은 예약된 컨테이너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터미널 밖에서 대기하며 수시로 확인작업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스마트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다 터미널 내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 GPS(위성위치시스템)를 이용해 스마트폰의 고화질 화면에서 터미널 내 이동 경로와 지도를 볼 수 있는 항만 네비게이션 기능도 지원한다.

KBCT 김용진 IT 운영팀장은 “스마트로 도입을 계기로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다른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코리아쉬핑가제트에 있으며, 무단 전재, 변형, 무단 배포를 금함 -

海事經濟新聞

로그인 | 회원가입 | 2011.02.16 발행인:정웅목 편집인:강옥녀



통합검색

검색

항만물류 | 국적선사 | 연안해운 | 국제해운 | 중합무역 | 조선산업 | 해사인력

· 항만물류

- 부두운영
- 항만개발
- 컨테이너
- 항계운영

· 국적선사

· 연안해운

· 국제해운

· 중합무역

· 조선산업

· 해양관리

· 수산유통

· 해사칼럼



· 주요해사인

· 경제정책

· 바다지킴이

· 알립니다

· 경제가이드

· 취재탐방

· 해양인문화

· 해양계교육

· 취업가이드

· 찾고싶은사람

· 해양인모임

· 해사경제인 인명록

· 발행인칼럼



HOME > 항만물류 > 부두운영

국 목록보기 | 인쇄하기

KBCT 스마트로 시스템 업계 최초 적용

[2011/02/14 14:45 입력]

KBCT 스마트로 시스템 업계 최초 적용

트럭 운전원들의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터미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KBCT, Korea Express Busan Container Terminal)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자사의 터미널 운용 시스템에 도입하기로 했다.

KBCT사는 'SmartLo'(스마트로)라고 이름 붙여진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 2월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SmartLo'는 스마트폰의 'Smart'와 물류를 뜻하는 'Logistics'의 합성어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원들이 항만 Gate 출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KBCT가 'SmartLo'의 도입을 적극 결정하게 된 목적은 고객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이다. KBCT를 이용하는 주 고객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의 운전원들로, 한 달에 약 10만여 대가 넘는 트럭이 KBCT를 드나들고 있다.

트럭의 운전원은 KBCT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작업을 마친 후, 터미널 내 목적지가 기재된 인수도장을 발급 받아 해당 상하차 장소로 이동하여 컨테이너를 실거나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원들은 예약된 컨테이너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터미널 밖에서 대기해야만 한다. 또한 정보가 언제 확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작업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SmartLo'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내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고화질 화면으로 터미널 내 이동 경로를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항만 내 네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한다.

KBCT 김용진 IT 운영팀장은 "KBCT가 SmartLo의 도입을 계기로 컨테이너 트럭 운전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다른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됐다"며 'SmartLo'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011년 토끼해를 맞아, KBCT는 'SmartLo'를 이용하여 고객을 위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사경제신문
정웅목 wmchung@ihaesa.com